

# 3

## 계엄령에 대하여

— 관동대지진을 상기한다는 것

도미야마 이치로



- (위) 자위대의 재해파견 활동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미군의 '친구작전'에서 사용된 마크, 히로쓰 가즈오, 히로쓰 가즈오의 '떠도는 류큐인' 표지



## 1. 시작하며 : 위장복

오늘날 도쿄를 보면 불법입국한 다수의 삼국인, 외국인이 매우 흉악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쿄의 범죄 양상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크나큰 소요사건까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처하기에 우리 경찰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여러분에게 출동을 바라며, 재해의 구조뿐만 아니라, 역시 치안유지도 여러분의 커다란 목적으로 수행해 주셨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sup>1)</sup>

지난 2011년 3월 11일의 대지진 직후,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하여 여전히 수상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 도지사가 육상자위대 앞에서 행한 이 발언을 현 상황을 생각하는 회로로서 확보해 두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발언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위기 속에서 현세화(現勢化)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여전히 제국의 계보 속에 존재하고 있

\* 지은이 | 도미야마 이치로(雷山一郎) 도시사(同志社)대학 글로벌스터디스 연구과 교수. 오키나와 근현대사연구, 문화연구. 지은 책으로 『近代日本社会と「沖縄人」』(日本経済評論社, 1990), 『전장의 기억』(이산, 2002), 『폭력의 예감』(그린비, 2009)이 있으며, 편저로 『記憶が語りはじめる』(東京大学出版会, 2006년), 『ポスト・ユートピア의人類学』(공편,人文書院, 2008), 『現代沖縄の歴史経験』(공편, 青弓社, 2010), 『コンフリクトから考える』(공편, 大阪大学出版会, 2012) 등이 있다.

1) 内海愛子・高橋哲哉・徐京植, 『石原都知事「三国人」発言の何が問題なのか』, 影書房, 2000, 201쪽.

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시하라의 발언에서는 사법을 넘어선 군사적 폭력과 치안유지의 밀접한 관계가 범죄라는 사법적인 법적 규정을 근거로 등장하고 있다. 거기에서 법적 질서에 잠재하는, 법을 넘어선 무법의 국가폭력이 드러날 것이다. 이 글에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무법적인 폭력의 현세화이며, 그것은 우선 재해라는 위기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뒤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질서의 유지를 군사적으로 실현하는 비상사태야말로 계엄령이라는 문제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시하라의 발언이 과거 제국의 기억을 상기시켜 미래에의 경구가 되는 것도 계엄령이라는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지금의 일본국 헌법에는 계엄령을 정하는 규정이 없다. 또 2011년 3월 11일의 대지진과 관련한 자위대의 행동도 일단 군사행동으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즉 자위대법 제6장 '자위대의 행동'에서 규정되고 있는 이른바 재해과건은 이번 지진 피해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로서 지지를 받았고, 다양한 미담을 낳았다. 하지만 동일한 자위대법 제6장, 재해과건 앞의 항목에는 치안출동 및 경호출동이 규정되어 있다. 즉 "일반 경찰력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위대를 치안유지를 위해 출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출동 요청은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가 할 수 있다. 이시하라의 발언은 바로 이 재해시의 치안출동을 말한 것이었다. 거기에서 재해과건과 치안출동은 구별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번 지진재해와 관련하여 미군의 재해지원(친구작전, トモダチ作戦)도 선의의 행동으로서 아무런 논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 '친구작전'은 한반도와 관련한 군사행동을 규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군사행동이며, 유사사태를 상정한 미일 양군의 연계를 선취한 것이었다. 재해과건과 치안출동이 이어서 실행된다는 것, 굳이 말하자면 재해과건으로 전개한 군을 곧바로 치안출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시하라는 이 양자를 의식적으로 중첩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이 글의 목적은 치안유지나 군대와 관련한 제도적 분석이 아니다.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은, 평시의 법을 넘어선 군사행동을 재해과건과 치안출동으로

분할하고 전자를 비상사태에서의 국가의 역할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폭력을 총체로서 감지하는 인식의 소재[在処]이며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발견될 미래다. 목적으로 변별하는 것이 아닌, 폭력에의 감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에의 감지야말로 이시하라의 발언에 대처하는 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닐까.

이시하라의 발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 주는 믿음직한 발언이라며 찬동했다. 그리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자위대의 파견은 미담이 되고, 미군은 친구로서 환영받았으며, 이시하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발언에서 관동대지진에서의 계엄령을 상기했다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면, 메도루마 슌(目取真俊)<sup>2)</sup>은 오키나와(沖繩)에서 가나가와(神奈川)로 일하러 와 있던 할머니를 상기하면서, 이 계엄령 그리고 이시하라가 말한 치안유지가 자신을 향한 폭력이라는 점을 기록하고 있다.<sup>3)</sup>

이 메도루마의 상기가 중요한 것은 이시하라의 발언에 있는 ‘삼국인’이라는 명명과 관련해서다. 그것은 ‘삼국인’에 오키나와인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사실 확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 명명은 단순히 어떤 민족적 카테고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계엄령에 관련된 폭력이 이 명명과 그에 대한 응답에서, 즉 심문(尋問)에서 행사되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sup>4)</sup> 국가의 법을 넘어선 무법의 폭력이 바로 심문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심문은 심문받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방법, 발음, 숨결, 긴장한 표정, 이마의 땀을 응답으로서 강요

2) 메도루마 슌(1960~)은 오키나와 출신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오키나와의 자연과 풍토, 역사에 근거한 소설과 수필을 발표하고 있다. 대표 소설로는 『水滴』(文藝春秋, 1997), 『魂込め』(朝日新聞社, 1999), 수필로는 『沖繩/草の声・根の意志』(世織書房, 2001), 『沖繩'戦後'ゼロ年』(日本放送出版協会, 2005) 등이 있다. — 옮긴이

3) 内海愛子·高橋哲哉·徐京植, 『石原都知事'三國人'発言の何が問題なのか』, 99~101쪽. 도바루 가즈히코(桃原一彦)는 3월 11일의 대지진 후의 오키나와와 관련한 계보 속에서 이 메도루마의 문장을 확보했다. 知念ウシ·與儀秀武·後田多敦·桃原一彦, 『闘争する境界 — 復帰後世代の沖繩からの報告』, 未来社, 2012, 189쪽; 桃原一彦, 『大都市における沖繩出身者の同郷的結合の展開』, 『都市問題』, 91卷 9号, 2000.

4) 김항은 관동대지진에서 등장한 심문을 ‘일본인이다’라는 것의 생성과 그것을 자연화하는 국가의 힘으로서 논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인이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일 때, 거기에는 끊임없는 심문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金杭, 『帝國日本の闘 — 生と死のはざまに見る』(岩波書店, 2010)의 특히 8장을 참조. 이 책은 심문과 관련한 지적에 머물지 않고 계엄령이라는 문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이 책에 대한 나의 서평도 참조할 수 있다. 冨山一郎, 『肉塊の思考』, 表象文化論学会 編, 『表象』, 6号, 月曜社, 2012.

한다. 그것은 신체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이미 폭력이다. 심문의 결과로 드러나는 출신이나 민족에 관한 사실은 폭력의 근거가 아니며, 또 그 출신이나 민족의 사실 확인을 기다려 폭력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심문이라는 언어행위에서 이미 폭력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검토하고 싶은 점은 이 심문이라는 언어행위와 관련한 폭력이며, 이와 같은 폭력에 대한 감지력이다. 이시하라의 발언을 믿음직하게 여기는 일상에서 이미 폭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즉 계엄령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2011년 3월 11일 이후, 일본은 긴 비상사태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물론 이번 재해가 원전사고라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재해의 유형적인 설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해를 계기로 생겨나는 질서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무엇이 일어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출근 재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기라는 점은 확실하지만, 그 위기가 진정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언제 끝날 것인지 모르는 채로 지금이라는 시간이 새겨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삶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할 것이다. 징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위기는 그것을 인지하는 자가 인지 이전에 상정하고 있던 미래를 끊임없이 지워 버리기 때문이다. 혹은 스스로를 둘러싼 세계를 안다는 행위가 그 행위 주체의 붕괴를 수반하는 사태가 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붕괴감과 함께 안다는 행위를 확보하는 것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자신이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비슷한 것일지도 모른다.<sup>5)</sup>

5)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안젤라 디비스 등과 함께 민영화되어 공장화된 형무소 혹은 형무소-산업복합체(the prison industrial complex)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한 딜런 로드리게스(Dylan Rodriguez)는 수인(囚人)문학의 연구를 행하면서 형벌의 이름 아래 되풀이되고 있는 강제노동과 고문이 불러일으키는 지(知)의 변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안다는 행위를 관찰이 아니라 상황의 생성으로서 사고하려 한다. 즉, 이러한 억압체제에 직면할 때 그것을 습관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지가 태어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체제에 저항할 때 만나는 것은, 우선 이제까지 자신이 살고 있던 세계를 인식하던 그 습관화된 인식들의 붕괴다. 그리고 딜런은 이러한 붕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인생을 박탈하고 그 삶을 말할 수 있는 체제를 그 체제 속에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물음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안다는 행위가 알려고 하는 행위 주체의 붕괴와 함께 등장하는 사태다. Dylan Rodriguez, "State Terror and the Reproduction of Imprisoned Dissent", *Social Identities*, vol. 9, no. 2, 2003. 또한 이러한 억압체제를 습관으로서 통과시키는 일상은 이케다 히로시(池田浩士)가 사형제도를 둘러싸고 이야기한 물음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사형에 의해 위협받

또한 반대로 말하자면, 이 인지가 보여 주는 것은 위기를 과거의 일로 설정하고 해결가능한 과제로 말하는 것의 위험성이기도 하다. 재해를 부흥의 정치에 귀착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러한 정치는 인식 주체가 끌어안고 있는 붕괴에 대한 부인이 될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부인의 정치는 위기를 알리고 하는 자에 대한 금지와 배제를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마치 긴 비상사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부인과 금지를 둘러싸고 위기의 심연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이 새롭게 현세화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불안을 억눌러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창 제창되고 있는 ‘힘내자 일본’(がんばろうニッポン)이, 동시에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탈출의 절규처럼 들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창이 점차 국가와 국민을 향하는 가운데, 반복하지만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불안을 떨쳐 버리지 않고 붕괴감을 견디면서 안다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인식 속에서 국가는 다른 것으로 보일 터다. 작년 9월 19일 도쿄에서 거행된 항의집회에서 “우리는 버려졌다”<sup>6)</sup>고 발언한 무토 루이코(武藤類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가 한 것은 “정보를 숨기는 것”, “사고를 작게 보이게 하는 것”, “(원전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기준을 끌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후쿠시마현민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sup>7)</sup>

국가가 자신들을 죽음의 심연에 유기하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 지금 조용히

고 있기보다는 사형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는 감정을 이 나라의 다수가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사형집행의 권한을 가진 것은 절대로 아닌 반면에,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전무한 것도 아닌 ‘국민’이라는 위치를 생각하면 웬지 기묘한 것이다. 사형에 처해지는 측보다는 사형을 집행하는 측에 가깝다는 이 감각은 순수한 공상의 영역에 속한다(池田浩士·川村湊, 『死刑文学を読む』, インパクト出版会, 2005, 267쪽). 이 글에서는 계엄령에서 국가의 문답무용의 폭력을 감지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이케다가 말한 ‘공상의 영역’을 철저하게 비판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6) 武藤類子, 『福島からあなたへ』, 大月書店, 2012, 15쪽.

7) 武藤類子, 『福島からあなたへ』, 15쪽.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버림받은 국민’[棄民]으로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둬 버리는 국가의 얼굴이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버림받은 국민이라는 위치에서 국가가 다시 그려지는 일일 것이다. 일본이라는 국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이 날아오는 공간에 사람들을 가둬 두고 있다. 그것은 ‘SPEEDI’<sup>8)</sup>이라고 불리는 방사성 물질의 확산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정보전달상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피폭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이다. 무토가 말한 보이지 않는 감옥이란 바로 이러한 국가의 소행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이 감옥의 근거는 패닉을 피한다는 명분의 치안유지다. 다시 말해서 치안을 명분으로 사람들은 감옥에 가둬지고 신체는 피폭당했던 것이다.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은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 있으며, 치안유지의 명분하에서 사람들을 버려진 국민으로 가두고 피폭이라는 폭력을 행사해 온 국가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살인죄가 아닌가.” ‘SPEEDI’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어떤 정장(町長)은 이렇게 발언했다.<sup>9)</sup> 지금 응시해야 할 것은 국가가 치안유지를 위해 문닫무용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또한 구제나 부흥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심성 자체가 즉 ‘힘내자 일본’이야말로 무법의 치안유지에 직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든 처음에 ‘도호쿠’(東北)에 대해 언급하는 감상적인 마쿠라코토바(枕言葉)<sup>10)</sup>가 정회원의 자격증명으로서 만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야말로 계엄령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계속되는 위기의 불안을 견디면서 이러한 국가의 소행을 거부하는

8) ‘SPEEDI’은 긴급시 신속 방사능 확산 예측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으로,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 확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3·11 직후 ‘SPEEDI’에 따른 예측 결과가 늦게 공개되면서 비난이 지연되었고 일부 주민들은 확산지역으로 대피하는 등 혼란이 초래되었다. 예측 결과는 3월 23일에 가서야 일본 국민들에게 공개되었다. — 옮긴이

9) 朝日新聞特別報道部, 『プロメテウスの罫: 明かされなかった福島原発事故の真実』, 学研2パブリツシツク, 2012, 22쪽.

10) 마쿠라코토바(枕言葉)는 옛날의 와카(和歌) 등에 쓰인 수사법의 하나로 특정한 단어 앞에 붙여 어조를 고르는 수식으로 사용되었다. 오음절로 된 것이 많다. 여기에서 ‘힘내자’는 뜻의 ‘간바로’(がんばろう)는 오음절의 마쿠라코토바처럼 일본(ニッポン)을 수식하고 있다. 필자는 ‘간바로 닛본’이 사람들의 대화나 이야기 속에서 관용구처럼 무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 옮긴이

위치, 즉 버려진 국민의 위치야말로 안다는 행위에 있어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영역이 아닐까. 그것은 그 행위의 프로세스에서 버려진 국민의 눈을 획득한다는 수행적인 의미를 지닌 일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버려진 국민은 이탈 혹은 도망이라는 전략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버려졌다”고 발언한 무토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sup>11)</sup> 버려진 국민으로부터 새로운 미래로의 이탈로.

위기에 등장하는 계엄령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법의 국가가 등장하는 그 옆에서 버려진 국민의 위치로부터 발견되는 미래도 또한 현세화한다. 레베카 솔닛(Rebecca Solnit)이라면 이러한 미래를 ‘바뀔 가능성이 있는 현재’(a transformative present)라고 부를지도 모른다.<sup>12)</sup> 그것은 버려진 국민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동시에 이탈이며, 이러한 이탈에서 발견될 미래의 가능성이기도 할 것이다. 이 이탈을 바로 지금 전략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또 하나 3월 11일 이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미일 연합군의 치안출동 및 경호출동의 대상지역으로 존재해 온 오키나와다. 그러나 이 글은 오키나와와 후쿠시마가 희생을 강요하는 일본의 시스템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유사성의 해설이 아니다. 버려진 국민은 시스템 상의 정의가 아니며 폭력에 대한 감지력의 문제인 것이다. 버려진 국민의 위치에서 국가의 무법을 감지함으로써 획득된 ‘바뀔 가능성이 있는 현재’에, 굳이 말하자면 폭력의 예감과 함께 발견되는 미래로 사람들이 연결되는 것을 고민하기 위해 오키나와를 언급하려 한다. 그것은 계엄령으로부터의 이탈 가능성을 다초점적으로 확장해

11) 武藤類子, 『福島からあなたへ』, 82쪽.

12) 레베카·솔닛, 『災害ユートピア—なぜそのとき特別な共同体が立ち上がるのか』, 高月園子 訳, 亜紀書房, 2010, 203쪽. 솔닛은 기존의 질서가 모습을 잃고 소진하는 불확실한 영역을 문턱(閾, liminality)이라고 부른다(169쪽). 이 영역에서는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혹은 무엇이 이미 일어났는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한 것이다.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재해의 경고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혁명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172쪽). 비상사태란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도 아니고, 한시라도 빨리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혼란이나 대립도 아니다. 그것은 세계가 잠정적인 존재로 떠오르는 사태이며, 거기에서 요구되는 인식은 문턱에 머무는 무언가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견디면서 그곳에서부터 엿볼 수 있는 미래를 예감하는 것이다.

가는 시도이기도 하다. 오성(悟性)적으로 그려진 국가 시스템에서 정의되는 희생자로 오키나와와 후쿠시마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국민의 위치로부터 감지된 국가의 모습이야말로, 그리고 이러한 감지력으로 미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메도루마는 이시하라의 발언에서 관동대지진의 계엄령을 상기했다. 또한 거기에는 오키나와전에서의 일본군의 주둔으로부터 [오키나와전 이후에는] 미일 양군에 의한 점령상태가 중첩될 것이다. 이 역사의식이야말로 3월 11일 이후의 일본이라는 국가와 일본인이라는 국민을 그려내는 것이다. 예컨대 군용 헬리콥터가 추락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도바루 가즈히코(桃原一彦)는 지진 후에 연구실에 온 학생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놓치지 않았다. 그 발언은 자위대의 재해파견과 미군의 '친구작전'에 대해 나온 것이었다.

저 위장복에 위화감이 있다.<sup>13)</sup>

이 위화를 획득하는 감지력, 즉 “지진과 군대가 접목되는 것을 자명시하지 않고 위화나 불화로서 알아챈다”<sup>14)</sup>는, 안다는 행위야말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현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닐까. 게센누마(氣仙沼)에서 부흥지원을 했던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에 상주하는 점령군이다. 그리고 이 부대는 이라크의 팔루자(Fallūja)에서 주민을 포위하고 열화 우라늄탄을 투하하여 무차별 살육을 했던 실행 부대이기도 했다.<sup>15)</sup> 문제는 이러한 살육자를 자신들을 지켜주는 ‘친구’로서 받아들이는 심성이며, 그것은 동시에 점령상태에의 감지력이 없는 채로 이야기되는 ‘오키나와 문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2004년 8월 13일,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의 오키나와국제대학에 미 해병대 후텐마기지 소속의 대형 군용 헬기가 추락, 폭발했다. 곧바로 미군과 일본 경찰기

13) 桃原一彦, 『闘争する境界：復讐後世代の沖縄からの報告』, 未来社, 2012, 188쪽.

14) 桃原一彦, 『闘争する境界』, 189쪽.

15) 桃原一彦, 『闘争する境界』, 188쪽도 참조.

동대가 현장을 제압했고, 이러한 무장진압 속에서 사고는 처리되었다. 동시에 오키나와 주민의 행동은 이 진압 속에서 진행된 사고처리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감시되었다. 도바루 가즈히코는 이때의 사고를 ‘치외법권’이라고 부른다. 이 치외법권 속에서 오키나와 주민은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감시해야 할 용의자가 되었다. 이 일을 근거로 하여 도바루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인식될 수 없는 문제의 근원을 왜 ‘오키나와 문제’로 정리하려 하는가.<sup>16)</sup>

이 도바루의 발언으로부터 두 가지를 읽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는 재해가 새겨진 장소나 사람들이 치안출동한 군사력에 둘러싸여 감시당하고 진압된다는 것이며, 두번째는 그런 치안출동에 대해 질문하는 일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오키나와 문제다. 거기에서 응시해야 할 것은 치안출동과 선의로 이야기되는 오키나와 문제와의 공범관계다. 그리고 “전시·전중기부터 오키나와는 일관되게 ‘유사’(有事)인 것이다.”<sup>17)</sup>

자위대의 재해파견과 미군의 ‘친구작전’은 피해자를 치안유지에서의 용의자로 처리해 가는 프로세스가 아닌가. 그것은 또한 무토가 감지한 보이지 않는 감옥이기도 할 것이다. 오키나와국제대학 학생의 “저 위장복에 위화감이 있다”는 감지력은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작동하는 폭력을 감지하는 힘이며, 거기에서 파악된 모습은 버려진 국민의 눈으로 그려진 미일의 국가이며, 따라서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 글에서는 일관하여 비상사태, 즉 ‘유사’로 존재해 온 오키나와로부터 관동대지진을 상기하고, 지금도 작동 중인 계엄령을 생각하려 한다. 또한 거기에서 근본적인 공통의 질문은 이시하라 발언에 대한 감지력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의 문제다.

16) 桃原一彦, 「沖縄でつづく植民地主義」, 『インパクション』, 143号, 2004, 163쪽.

17) 桃原一彦, 「沖縄でつづく植民地主義」, 163쪽.

## 2. 오키나와 문제의 문턱<sup>18)</sup>: 「떠도는 류큐인」

의외일지도 모르지만, 관동대지진이나 계엄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고 있는 히로쓰 가즈오(広津和郎)<sup>19)</sup>의 전전(戰前)의 소설 「떠도는 류큐인」(さまよへる琉球人)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 전후,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나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 등과 함께 ‘마쓰카와 사건’<sup>20)</sup>의 재판에 깊이 관여한 히로쓰 가즈오는 1910년대부터 1920년대에 걸쳐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 등의 시라카바파(白樺派)나 프롤레타리아문학이 등장하는 가운데 끊임없는 문학논쟁의 와중에 있었다.<sup>21)</sup> 미야모토 겐지(宮本顕治)는 『사상』 1931년 3월호에서 히로쓰를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주변에 있는 과도적인 ‘동반자 작가’라고 명명했는데, 어쨌든 미야모토의 지적은 프롤레타리아문학으로부터 히로쓰의 위치를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에 기술하겠지만, 그 구도는 동시대의 문학논쟁 와중에 있던 아오노 스에키치(青野季吉)에 의한, 이 작품을 둘러싼 히로쓰에 대한 비판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곧이어 내용을 검토해 보겠지만, 히로쓰의 「떠도는 류큐인」이 『중앙공론』(1926년 3월호)에 발표된 직후에, 이 작품에 대한 ‘오키나와청년동맹’의 항의서, 「히로쓰 가즈오 씨에게 항의한다」가 『호치신문』(報知新聞) 1926년 4월 4일자에 제출되었다. 오키나와청년동맹은 야마다 유칸(山田有幹)을 회장으로 1926년 3월에 오키나와에서 결성된 운동단체다. 따라서 이 항의는 오키나와청년동맹 결

18) 여기에서 말하는 문턱(関)은 각주 12번에서 말한 문턱(liminality)과 동시에 김항의 「帝國日本の関」를 염두에 두고 있다.

어느 쪽이든 비상사태에서 국가의 현세화와 그 근방에 있는 탈출의 가능성과 관련한 언어다.

19) 히로쓰 가즈오(1891~1968)는 전전 일본의 소설가이자 문예평론가였다. 1913년 와세다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17년에 『중앙공론』(中央公論)에 「신경병시대」(神經病時代)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대표작으로 「死児を抱いて」(1919), 「風雨強かるべし」(1933) 등이 있다. — 옮긴이

20) 마쓰카와 사건(松川事件)은 1949년 일본 국철 도호쿠 본선에서 일어난 열차의 탈선·전복사건을 말한다. 사건 다음 날, 내각관방장관이 미타가 사건(三鷹事件)과 ‘사상 저류에서 동일한 사건’이라는 담화를 발표하여 국철 노동운동가들이 범인으로 부각되었다. 체포된 용의자에 대해 1950년의 1심에서는 20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고, 그 가운데 5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63년의 최고심에서는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다. 당시부터 공산당 계열의 노동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한 공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모야마 사건(下山事件), 미타가 사건과 더불어 국철 3대 미스터리 사건으로 불린다. — 옮긴이

21) 臼井吉見, 『近代文学論争』上(筑摩書房, 1975)을 참조.

성과 거의 동시에 작성된 것이다. 오키나와청년동맹은 한편으로 일본 각지에서 전개된 일본공산당의 지방 청년조직으로서 결성되었지만, 다른 한편 오사카에서 오키나와인의 사회운동, 노동운동을 조직하고 있던 적류회(赤流會)나 관서오키나와현인회(關西沖繩県人会)의 지도자들과의 교류 속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항의서에는 “언젠가 우리들도 현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기 규정이 등장하지만, 뒤에서 검토하듯이 사람들이 오키나와로부터 오사카 등지로 유출되어 간다는 사태가 오키나와청년동맹 결성의 저류에 존재하고 있다. 굳이 말하자면, 오키나와청년동맹의 이름에 기재된 오키나와는 하나의 지리적인 지역을 나타내기보다는 사람들이 지역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유동해 가는 와중에 재차 획득된 이름인 것이다.<sup>22)</sup>

오키나와청년동맹의 항의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히로쓰의 응답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겠지만, 항의서의 기본적인 주장은 히로쓰의 작품이 ‘오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항의에 대해 히로쓰가 「오키나와청년동맹 제군에게 답한다」<sup>23)</sup>, 「오키나와청년동맹으로부터의 항의서: 졸작 「떠도는 류큐인」에 대해」<sup>24)</sup>에서 응답한 일련의 전개가 있다.

이 응답의 과정에 대해 아오노 스에키치는 히로쓰가 오키나와청년동맹에 대한 응답에 얽매이게 된 것을 감상주의로 간주하고, 결과적으로 「떠도는 류큐인」이 류큐의 무산자에게로 문제를 한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오노는 류큐의 무산자에 대해 “지상에 편재하는 무산자”를 대치시켜 세계의 무산자야말로 문제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비판했던 것이다.<sup>25)</sup> 그러나 히로쓰는 어디까지나 오키나와청년동맹에 대한 응답에 얽매이게 되었고, 이 작품을 이후에 일체 재록(再録)하지 않고 ‘말살’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히로쓰는 전후에도 이 약속을 지켰던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아오노의 히로쓰 비판에 대해서 오시로 다츠히로(大城

22) 오키나와청년동맹 및 관서 지방의 적류회, 관서오키나와현인회의 운동에 대해서는 安仁屋政昭, 『沖繩の無産運動』(ひるぎ社, 1983) 및 富山一郎, 『近代日本社会と‘沖繩人’—‘日本人’になるということ』(日本経済評論社, 1991) 참조.

23) 『報知新聞』, 1926년 4월 11일자.

24) 『中央公論』, 1926년 5월호.

25) 臼井吉見, 『近代文学論争』上, 226쪽.

立裕)는 이렇게 말했다.

오키나와 문제를 곧바로 인터내셔널한 추상의 장으로 확장하고 거기에서밖에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에도 자주 보이는 태도를, 아오노가 당연한 것처럼 취한 것에 대해, 히로쓰는 그래서 아무래도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과의 차이라고 여기고 싶다.<sup>26)</sup>

오시로의 문장에 포함된 ‘오키나와 문제’, ‘인터내셔널한 추상의 장’, ‘오늘날에도 자주 보이는 태도’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는 많은 논점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의 깊게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 우선, 오시로의 문장은 『신오키나와문학』(『新沖繩文学』 17호, 1970년 8월)에 게재된 것이다. 또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떠도는 류큐인’의 ‘말살’의 약속은 히로쓰가 죽는 1968년까지 계속 지켜지지만, 1970년에 『신오키나와문학』의 같은 호에 복각되었던 것이다.<sup>27)</sup>

그리고 오시로의 문장은 이 복각에 즈음하여 쓰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오키나와 문제’ 혹은 ‘오늘날에도 자주 보이는 태도’는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를 목전에 둔 1970년이라는 상황 속에서 읽혀야만 한다. 1969년 11월 22일의 사토-닉슨 회담에 의해서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가 정치과정에서 확정되고, 그 복귀의 의미가 명확하게 되었다. 1970년이라는 연호(年号)는 일본에의 복귀가 확정된 미래로서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일본사회로 들어가는 것의 의미가 현실문제로서 날카롭게 추궁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또 그 복귀라는 것은 기지도 핵도 있는 복귀였으며<sup>28)</sup> 요구했던 꿈이 배신당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26) 大城立裕, 「復刻をめぐる感想」, 『新沖繩文学』 17号, 1970年 8月, 5쪽.

27) 또 그 후에는 도지다이샤(同時代社)에서 복각되었다. 이 소설 및 관련한 많은 논쟁이나 평론에 대해서는 나카호도 마사노리(仲程昌徳)의 밀도 높은 해설을 참조할 수 있다. 仲程昌徳, 「解説」, 広津和郎, 「さまよへる琉球人」, 同時代社, 1994.

28) 오키나와의 복귀운동에서 가장 일반적인 구호 가운데 하나는 ‘기지도 핵도 없는 오키나와’라는 구호였다. — 옮긴이

오시로의 문장 역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쓰인 것이었다. 거기에서는 문제화된 오키나와와 그것을 논하는 사람들이 상정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보편적인 코드로 오키나와 문제를 논하고 있는 ‘자주 보이는 태도’가 우선 떠오를 것이다. 그 보편적 코드는 무산자일지도 모르며 계급일지도 모르고 혹은 반기지나 평화라는 슬로건일지도 모르지만, 오시로는 어쨌든 이런 오키나와 문제와 그것을 논하는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 구도에 잘 들어맞지 않는 어떤 가능성을 「떠도는 류큐인」이라는 작품과 오키나와청년동맹의 항의에 대한 히로쓰의 자세에서 보려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오시로는 히로쓰의 오키나와청년동맹에 대한 응답에 등장하는 “저는 머리 숙여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라는 대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는 언젠가의 오키나와 르포에서 “단지 말문이 막혀 머리를 숙일 뿐”이라고 끝맺었다. 그에 대해 어떤 오키나와인이 “그런 것으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항의를 한 일이 여기서 생각나지만, 우리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십수 년간 떠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29)</sup>

단지 반성하고, 침묵하고, 사과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편으로는 보편적 코드로 오키나와 문제를 떠들며 해설하는 사람들. 히로쓰 자신도 포함한 「떠도는 류큐인」을 둘러싼 1920년대의 논의에 오시로가 착목한 것은 1970년이라는 상황에서의 아마토 지식인들의 원형이라고 해도 좋을 문제계(問題系)였던 것이다. 오시로와 마찬가지로 지적은 같은 『신오키나와문학』에 수록되어 있는 유이 아키코(由井晶子)의 문장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29) 大城立裕, 「復刻をめぐる感想」, 56쪽.

지금만큼 일본 속에서의 오키나와 본연의 자세, 본토의 오키나와에 대한 대처방법, 오키나와와 본토 관계의 본질에 관한 재점검이 추구된 때가 없었다. 「떠도는 류큐인」 문제는 양심적이고자 하는 본토 지식인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 준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현재도 살아 있다.<sup>30)</sup>

그리고 유이가 말한 소설의 의의는 복귀 40년을 맞이한 현재의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살아 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되고 있다고 해도 좋다. 그리고 우선 해야 할 일은 단지 반성하고 양심적이고자 하는 지식인에 잘 들어맞지 않는 히로쓰, 혹은 보편적 코드로 오키나와를 해설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위화감을 느껴 버린 히로쓰를 이 작품과 향의, 응답의 과정 속에서 찾아내는 작업,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먼저 말하자면, 고향이든 '내지'든 어디에 살아도 이미 유민(流民)인 '떠도는 류큐인'으로부터 개시되어야 할 정치의 단서를 확보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우선 이 작품의 전제로부터 시작해 보자. 이 단편은 도쿄에 사는 주인공인 '자신' 앞으로 갑자기 자신을 '류큐인'이라고 밝힌 미카에루 다미요(見返民世)라는 인물이 찾아오는 것에서 시작한다. 미카에루가 '자신'의 집에 놀러볼게 되는 가운데 '자신'은 미카에루로부터 석유곤로 등을 강매당하고, 또 역시나 '류큐인'이라는 그의 지인은 중요한 서적을 가져가 버린다. 게다가 미카에루에게 두 번에 걸쳐 돈을 갈취 당한다. 스토리는 '자신'이 '류큐인'과 주고받는 대화로 구성되며, 속임을 당하면서도 질질 이어지는 양자의 관계가 이야기의 축이 되고 있다.

소설의 전반에 미카에루 다미요가 '자신'에게 '류큐의 농업문제'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거기에서 오키나와의 사탕수수 산업이 본토 자본가들에 의해 멸망의 위기에 있으며, 사람들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랑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이 소설의 전제로 상정되고 있는 것은 1920년의 설탕 가격 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이른바 소철지옥(蘇鉄地獄)<sup>31)</sup>이라고 불린 사회 붕괴

30) 由井晶子, 「さまよへる琉球人の再録」, 『新沖繩文学』, 17号, 1970年 8月, 60쪽.

다. 소철지옥이라는 사회 붕괴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상세히 쓸 수 없지만, 그것은 자본에 포섭된 농민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위기는 제당 산업이 근대(화)를 담당하고 있던 오키나와 그리고 아마미(奄美)를 삼켜 버린 것이었다. 「떠도는 류큐인」에서 류큐라는 단어는 우선 오키나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마찬가지로 소철지옥이 도래한 아마미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이 소철지옥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또한 이 소설이 쓰인 1926년은 소철지옥이 오키나와 구제를 요구하는 사회 문제로서 급격히 부상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다. 오키나와의 비참함과 그 구제를 주장하는 신조 조코(新城朝功)의 『익사(溺死)의 류큐』(越山堂, 1925), 다무라 히로시(田村浩)의 『오키나와 경제사정』(南島社, 1925), 와쿠가미 로진(湧上巖人)의 『오키나와 경제논집』(改造之沖繩社, 1929), 오야도마리 야스나가(親泊康永)의 『오키나와여 일어서라』 등이 출판되었고, 신문들에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문제로서 오키나와가 언급되었다. 소철지옥이라는 위기는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오키나와로서 대상화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공적인 언론공간에서 오키나와가 문제로서 등장했다는 것이다. 또한 구제해야 할 오키나와라는 인식은 히로쓰에게 항의문을 보낸 오키나와청년동맹에서도 공유되고 있었다. 항의서의 첫 부분은 다음과 같은 서두로 시작되고 있다.

제국의 남단 오키나와가 목하 극도의 경제적 궁핍에 빠져서 완전히 빈사의 증상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주변에 이미 알려진 대로이며, 중앙의 신문·잡지 등에도 ‘경제적 망국의 좋은 표본’으로까지 거론되었고, 이제는 지방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 취급될 정도입니다.<sup>32)</sup>

31) 일본 다이쇼 말기부터 쇼와 전기에 걸쳐 있었던 공황을 오키나와에서는 ‘소철지옥’으로 부른다. 당시 오키나와 인구의 7할이 살고 있던 농촌부에서는 극도의 불황으로 곡식을 얻지 못해서 야생 식물인 ‘소철(蘇鉄)’을 식량으로 삼아야 했다. 독성을 가진 소철은 잘못 조리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로 허기를 달래야 했을 정도로 당시 오키나와는 극도로 피폐한 상황이었다. — 옮긴이

32) 広津和郎, 「沖繩青年同盟よりの抗議書・拙作」『さまよへる琉球人』について, 『新沖繩文學』, 17号, 1970年 8月, 36쪽.

소철지옥이라는 위기는 오키나와청년동맹이 말한 것처럼 확실히 국가적 문제의 표본처럼 다뤄지기 시작했다. 1925년에는 제국의회 제50의회에서 ‘오키나와현 재정경제의 구제조장에 관한 건의안’, ‘오키나와현 구제에 관한 건의안’이 결의되었고, 이를 근거로 구제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1932년의 오키나와현 진흥계획으로 결실을 보게 된다. 즉, 위기가 주장되는 가운데 구제나 진흥에 관련한 법적 개입을 담당할 주체로서 국가가 등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1920년대를 통해 오키나와 문제가 확실하게 법적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오키나와 문제란 오키나와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새로운 법과 국가의 등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문제인 것이었다. 따라서 거칠게 말하면, 주시해야 할 축은 문제를 안고 있는 오키나와가 아니라 위기에 대해 문제를 구성하면서 전개하는 국가의 재정의에 있다.

그리고 이 오키나와 문제의 형성은 구제를 바라는 자기상의 제시와 구제의 자격을 묻고 감시하는 권력의 등장이라는, 오키나와라는 영역에서 중첩되는 이 두 가지의 움직임에 의해 구성되는 정치를 낳았다. 예컨대 1924년에 간행된 이하후유(伊波普猷)의 「류큐민족의 정신분석」(『沖繩教育』 136号)은 이러한 정치적 자장 속에서 구제를 요청하는 신청자로서의 자기 제시 및 제시해야 할 자기에 대해 근거를 부여할 역사인식을 재구성해 가는 작업의 결과이기도 했다.<sup>33)</sup> 또 오키나와 진흥계획의 입안 과정에서 설치된 ‘오키나와진흥계획조사회’(1932년)에서는 오키나와를 식민지와는 구별되는 구제받아야 할 국토로 간주할 것인가가 논의되었는데<sup>34)</sup>, 거기에서는 이른바 한 사람의 훌륭한 일본(인)이라는 것이 구제의 자격 문제로서 이야기되었다.

이 글에서는 「さまよへる琉球人」 및 「沖繩青年同盟よりの抗議書」는 복각된 『新沖繩文学』에서 인용한다. 또한 인용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자(新字), 신가나(新仮名)로 변경한다.

33) 富山一郎, 『暴力の予感』, (岩波書店, 2002)의 종장 및 富山一郎, 「南島人とは誰のことか」, 竹沢泰子 編, 『人種概念の普遍性を問う』, (人文書院, 2005) 참조. 『暴力の予感』은 한글로 번역되었다. 도미야마 이치로, 손지연·김우자·송석원 옮김, 『폭력의 예감』, 그린비, 2009.

34) 富山一郎, 『暴力の予感』, 278~282쪽.

따라서 법적 구제는 구제받아야 할 삶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가는 격리와 배제를 동반하고 있으며, 또 이 구분에서 일본(인)이라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이런 오키나와 문제의 형성과 함께 나타나는 국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오키나와 문제의 형성은 오키나와의 자기 제시 및 국가의 재정의가 중첩되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중첩되는 프로세스는 오키나와라는 지리적 영역이 자기 제시의 근거와 국가의 개입 대상이라는 두 가지 전제로서 추궁되지 않고 자연화되어 가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오키나와 문제의 결정적인 논점이 있을 것이다. 즉 한편에서는 오키나와 문제의 형성에서 오키나와라는 이름은 지리적 영역으로 자연화된다. 다른 한편으로 전술한 오키나와청년동맹에서 간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키나와라는 이름은 하나의 지리적인 지역을 나타내기보다 소철지옥을 계기로 사람들이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유동하는 가운데 재차 획득된 이름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키나와라는 이름의 이중화는 소철지옥이라는 하나의 위기의 두 가지 표현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오키나와 문제의 형성은 동시에 구제의 법에서 법 외부에 놓인 또 다른 이름의 시작이기도 했던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오키나와 문제라는 영역은 형성과 동시에 파탄나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오키나와 문제라는 영역이 「떠도는 류큐인」의 전제로서 일단 존재하고 있다. 미카에루 다미요로부터 ‘류큐의 농업문제’를 들은 ‘자신’은 우선 오키나와의 지금까지의 역사에 아파하고, 당시 오키나와 문제를 논하던 조류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움직여 “그런 불합리[法外]한 일을 존재하게 한 것에 대해 의분을 느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을 볼 수 있으며, 거기에는 오키나와를 국가적 문제로 성립시키는 심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은 ‘류큐인’이라는 미카에루 다미요나 그 지인들에게 계속해서 사기를 당하면서 돈이나 중요한 책을 빼앗긴다. 그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이며, 부정되어야 할 불합리 즉 위법한 것일 것이다. 의분을 느

끼는 ‘불합리한 일’과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지탄받는 위법. 전자는 국가의 개입에 의해 구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후자는 어쨌든 재판받아야 할 대상으로 조정(措定)될 것이다. 또 전자는 지리적으로 영역화되어 울타리가 쳐진 오키나와라는 지역에 관련되는 것으로, 후자는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상의 사건으로 오키나와와는 관계없는 개인의 행위와 관련한 범죄로서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그처럼 처리할 수 없었다. 여기에 이 소설의 극히 중요한 논점이 있다.

소철지옥이라는 위기는 스스로의 사회를 향한 반란으로서 등장한 것이 아니다. 미카에루 다미요가 말한 ‘류큐의 농업문제’라는 ‘불합리한 일’은 결코 지리적인 범위에 한정된 국가적 문제로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일상의 질서를 뒤흔드는 사건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중요한 책을 가지고 도망가 버려 ‘자신’은 분개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오랫동안 박해를 당하면, 그 박해자에 대해 신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칭찬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때로는 동정하지 못할 이야기도 아니다. 자신은 미카에루가 전날 말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토지에 사탕수수를 재배해도 밥을 먹을 수 없다. 사탕수수를 재배하지 않으면 당연히 밥을 먹지 못한다. 더구나 그것은 류큐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어떤 원인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류큐 이외의 대국으로부터의 착취에 의한 것이다. 류큐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규슈 T탄광의 광부생활 쪽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향 자체의 어떤 원인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며, 고향이 지옥처럼 느껴지게 된 것도 고향 이외의 어떤 폭력의 압박에 의한 것이다. 그런 경지에 있지 않은 자신에게는 확실히 실감되지 않지만, 만약 자신이 그런 압박을 당하는 위치에 있다면 역시 압박자에 대해 신의나 도덕을 지킬 마음이 생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심정이 류큐인에게 생겼다고 해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무기를 빼앗긴 류큐인은 가라테라는 무서운 호신술을 만들어 냈다. 그것은 육체상의 문제지만, 정신적으로도 가라테를 닮은 일종의 호신술을 고안해 냈다고 해도 그렇게 부자연스런 이야기는 아니다.<sup>35)</sup>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은 불합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의 삶이 질서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리 없다는 극히 정직한 직관이다. “폐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루원). ‘자신’은 자신이 공격당하는 질서의 주인이며 따라서 배신당한 뒤에 가라테로 쓰러뜨려지는 것을 “부자연스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의분을 느끼는 불합리와 범죄로서 처리된 위법이란 결코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하나로 연결된 사태라는 것을 간파한 ‘자신’은 전자인 의분의 대상이면서 구제해야 할 오키나와 문제가 자신과는 동떨어진 구제법의 대상으로서 지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폭력으로서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 소설에서 ‘자신’이 양심을 기반으로 의분을 부르짖는 양심적 지식인들로부터 비어져 나오고 있는 어떤 종류의 극점이 틀림없이 존재한다. 이 쓰러뜨려진다는 폭력의 예감은 “식민지주의자가 만들어 낸 세계에 직면하여 원주민은 항상 범죄용의자다”<sup>36)</sup>라고 한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의 언어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자신’의 이 극점은 오키나와 문제를 의분에 의거해서 말하고 자기의 일상은 거기에서 구분해서 확보한다는 양심적 지식인의 안녕이 봉괴하는 시점인 것이다. 또 덧붙여 말하자면, 이 의분과 안녕의 구분은 오키나와 문제를 무산자보다 보편적인 코드로 말하려 한 아오노 스에키치에게도 공통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논점은 개별인가 보편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서 논의되는 대상을 자기의 일상을 뒤흔드는 힘으로서 감지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있다. 수다스럽게 이야기되는 오키나와 문제가 정지하는 문턱의 영역에서 무엇이 개시되는 것일까. 쓰러뜨려진다는 ‘자신’의 폭력의 예감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자신’이 내딛기 시작한 오키나와 문제의 문턱은 오키나와청년동맹의 항의

35) 広津和郎, 「さまよへる琉球人」, 24~25쪽.

36) フランツ・ファノン, 鈴木道彦・浦野衣子 訳, 『地に呪われたる者』, みすず書房, 1996, 33쪽. 관련하여 富山一郎, 「この, 平穏な時期に: 東京タワー・ジャックにおける富村順一の『狂気』をめぐって」(野村浩也 編, 『植民者へ』, 松籟社, 2007)을 참조.

서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떠도는 류큐인」에서 ‘자신’은 사기를 당하고 절도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단순한 부도덕이나 범죄로 간주하지 않고 거기에 ‘류큐인’의 역사를 중첩시키면서 “오랫동안 박해를 당하면 그 박해자에 대해 신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오키나와청년동맹이 가장 항의했던 점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단지 오키나와 문제를 불합리한 일로서 분개하는 양심적 지식인으로부터 비어져 나와, 오키나와 문제의 문턱으로 향하는 ‘자신’에 대해서야말로 항의가 개시되었던 것이다. ‘자신’이 말한 부분에 대해 오키나와청년동맹의 항의는 다음과 같다.

모두가 곧바로, 류큐인은 도덕관념이 다른 인간이다, 신의 없는 자다, 파렴치도 아무렇지 않게 한다, 신용할 수 없는 자다, 등의 인상을 남기지 않을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류큐인 전부가 그렇지는 않다”만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다”고 오해받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sup>37)</sup>

여기에 쓰인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다”, “전부가 그렇지는 않다”, “경향”이라고 한 말은 히로쓰의 소설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경향”으로써 오키나와의 역사를 도입하려 한 ‘자신’에 대해 오키나와청년동맹은 그것을 오키나와와는 관계없는 개인의 문제로 돌려 버리고 “경향”으로 논한 내용을 오해라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히로쓰는 이 항의를 받아들여서, 곧바로 오해를 준 것에 사죄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히로쓰는 「떠도는 류큐인」이 실린 『중앙공론』(1926년 5월)에 오키나와청년동맹의 항의서 및 그 항의서에 대한 자기의 응답을 게재했지만, 그 서두에는 “오키나와현 사람들에 대한 세간의 신용에 누를 끼친 점이 있다면 일반 오키나와현 사람들에 대해 면목이 없음과 함께 자신으로서도 뜻밖”(강조는 인용자)이라고 기술되어 있다.<sup>38)</sup> 그리고 이렇게 쓴 다음에 “현재 눈앞의 문제”인 오키

37) 広津和郎, 「沖縄青年同盟よりの抗議書」, 『新沖縄文学』, 38쪽.

나와의 “경제적 파탄으로부터 당신들 현인을 구하자고 말하는 것이 급무입니다”라고 오키나와 문제에 대해 재차 의분을 표명한 것이다.<sup>38)</sup> 오키나와 문제가 자신이 사는 세계를 무너뜨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확신, 즉 그와 같은 상상은 근거 없는 오해라는 단언과 ‘당신들’을 구하고 싶다는 양심적 지식인으로서의 의분은 여기에서 완전히 겹쳐 공범관계로 묶이게 된다.

소설 속의 ‘자신’은 ‘H’로도 바뀌어 이야기되며, 히로쓰 본인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지만 소설상의 ‘자신’과 히로쓰 본인은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의분을 느끼는 불합리와 범죄라는 위법을 중첩시켜 사고하기 시작한 ‘자신’의 시도는 오키나와청년동맹의 항의에 대한 응답에 의해, 히로쓰 자신에 의해 정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후자의 위법은 ‘일반 오키나와현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도 없으며, 비난받고 처벌되어야 할 개인의 범죄 문제이며, 거기에서 오키나와의 역사를 중첩시켜 생각하는 것은 세간에 오해를 주는 행위가 된다. 그리고 그 위에서 히로쓰는 전자의 불합리, 즉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더 큰 의분을 되풀이하기에 이른다.

이 응답의 과정에서 무엇이 추궁되지 않은 채로 방치된 것인가? 그것은 히로쓰가 세간이라고 칭한 자기들의 일상이며, 그 주인인 히로쓰 자신이다. 또한 범죄로 단죄되어야 할 위법은 오키나와 문제와 관련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키나와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범죄자의 문제이며, 개인에게 귀착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오해를 초래했다는 히로쓰의 응답은 일상에서 제기되어야 할 질문을 봉인하고, 의분만을 지리적으로 둘러싸인 오키나와로 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오키나와 문제는 순화될 것이다. 그리고 양심적 지식인은 안녕의 거처를 확보할 것이다. 이 소설의 ‘자신’이 연 오키나와 문제의 문턱은 오키나와라는 이름의 지리적 한정과 일상으로부터의 외재화에 의해 봉인된 것이다. 그것은 또한 히로쓰가 재차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자기 규정 하는 것이기도 했다. 「떠도는

38) 広津和郎, 「沖繩青年同盟よりの抗議書」, 36쪽.

39) 広津和郎, 「沖繩青年同盟よりの抗議書」, 41쪽.

류큐인』이라는 텍스트에서 사고해야 할 것은 히로쓰에 의해 닫혀진 오키나와 문제의 문턱이며, 쓰러뜨려진다는 예감과 함께 발견된 미래가 아닐까.

### 3. 계엄령

이 소설을 둘러싼 질문은 아직 남아 있다. 그것은 소철지옥이라는 사회 붕괴를 자기의 일로서 떠맡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찾아낸 이 오키나와 문제의 문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그것은 오키나와라는 이름을 자연화된 지리상의 이름이 아니라 유동화된 혹은 유동화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획득하려고 했던 오키나와청년동맹이 이 문턱의 영역에서 무엇을 감지하고 있었던가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오키나와청년동맹 항의서의 말미는 다음과 같다.

본 동맹은 산업 성년의 동맹입니다. 우리는 무산자이자 무능력하며, 일하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 나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현(県) 바깥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현민(県民) 대중 일반의 문제임과 동시에, 또한 머지않아 우리 자신을 위협할 중대 문제입니다.<sup>40)</sup>

반복하지만 오키나와청년동맹에게 오키나와라는 이름은 지리적으로 둘러싸인 오키나와현이 아니다. 그것은 오키나와현 밖에서 살길을 구한 사람들의 이름이며, 오키나와 문제에서 오키나와의 지리적 자연화에 대해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뜯겨 나온 혹은 뜯겨 나올지도 모르는 삶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삶은 오키나와 문제의 근거가 된 구제받아야 할 삶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히로쓰의 소설이 초래한 오해란 어떠한 위협인가?

전술한 것처럼, ‘류큐인’에게 계속 사기당하면서 ‘자신’은 자기가 (‘류큐인’으로부터) 반항을 받는 질서의 주인이며 가라테로 쓰러뜨려지는 것을 “부자연스런

40) 広津和郎, 『沖縄青年同盟よりの抗議書』, 39쪽, 강조는 인용자.

이야기는 아니”라고 했다. 이 ‘자신’은 미카에루 다미요 등의 ‘류큐인’에게 말려들면서 오키나와 문제에 단지 의분을 표명하는 양심적 지식인으로부터 변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소설의 최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떠도는 류큐인’이라고 생각해서 배신당한 것에 흥미 따위를 가지고 싶어하는 자신의 병적 기질이 몹시 역겨운 기분이 들었다. 사람이 이용하고 싶도록 틈을 보여 사람을 나쁜 쪽으로 유혹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은, 방만하고 무책임한 자신의 생활법에 ‘정신 차려!’라고 고함을 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sup>41)</sup>

변태의 시도는 말미에서 ‘자신’에 의해 봉인되고 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은 사키나 절도를 단지 범죄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키나와의 역사와 함께 생각하려 했다는 것을 ‘병적’이라고 기술하고, 그와 같은 태도에 대해 ‘정신 차려!’라는 호령을 붙인 것이다. “부자연스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예감은 단순히 오해였다는 반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신 차려!’라는 군사적 호령에 의해 봉인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봉인은 ‘자신’만의 사건이 아니다. 이 최후의 말미로 향하는 전 단계로서 미카에루의 행동을 처음부터 꿰뚫어 보고 있던 것처럼 “H씨는 너무 사람을 믿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하는 편이……”라고 진언하는 하숙집 여주인이 등장한다.<sup>42)</sup> 이 여주인이 보여 주는 것은 세간의 상식이며, 이 상식을 마주해야 할 ‘자신’은 ‘자신’에게 ‘정신 차려!’라고 호령했던 것이다. 거기에서는 확실히 신체를 무리해서라도 맞추려고 말버둥치는 ‘자신’이 있으며, 또 호령으로 무리하게 복귀하려 하는 곳에 ‘자신’이 품은 다른 가능성을 여운으로 남기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세간에 복귀시키려는 호령은 오키나와청년동맹에게는 다른

41) 広津和郎, 『沖繩青年同盟よりの抗議書』, 35쪽.

42) 広津和郎, 『沖繩青年同盟よりの抗議書』, 35쪽.

반향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호령의 부분에 대해 오키나와청년동맹의 항의서에서는 오해받을 위험성을 ‘정신 차려!’라고 해서 자신들이 호통을 들을 일로 했다고 기록되고 있다.

“그렇다고 전해 들은 경향이 대체로 있다”고 해도 오해받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처지를 자포자기한 자신의 생활법에 ‘정신 차려!’라고 쓰인 문구를 빌려오면, 소위 일반 ‘내지인’에게 ‘정신 차려!’라고 ‘류큐인’을 “호통치지 않게 할 수 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sup>43)</sup>

쓰러뜨려질지 모른다는 ‘자신’의 예감은 새로운 변태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호령과 함께 자기들 오키나와인을 범죄자 혹은 병자로서 진압하는 폭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키나와청년동맹은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상정되는 것은 개인화된 편견이나 오해가 아니다. 우선, 그것은 문자 그대로 국가라는 기구와 관련된 군사적 폭력에 관한 것이며, 여기에서 오키나와 문제와 함께 재정의된 국가의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을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쓰러뜨려질지도 모른다고 ‘자신’이 예감하는 것은 오키나와청년동맹에게 있어서는 근거 없는 오해로서 미리 없애 버려야 했던 것이 아닐까. 히로쓰와 오키나와청년동맹을 둘러싼 항의와 시위는 히로쓰에게는 변태 가능성의 봉인이지만, 오키나와청년동맹에게는 국가의 폭력을 사전에 없애 버리는 일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양자가 의미하는 오키나와라는 이름은 결정적으로 구분될 것이다. 히로쓰에게 오키나와는 국가적 문제로서의 오키나와 문제이지만, 오키나와청년동맹에게는 오키나와 문제로 수렴하지 않는 소철지옥에 각인된 삶이며 오키나와 문제의 문턱에 관련된 이름이다. 그리고 이 이름은 국가의 폭력을 사전에 감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떠도는 류큐인」이 게재된 오키나와청년동맹의 항의가 이뤄진

43) 広津和郎, 「沖縄青年同盟よりの抗議書」, 38쪽.

1926년이라는 일자가 큰 의미를 지니기 시작할 것이다.<sup>44)</sup> 1923년의 『부인공론』(婦人公論)에 히로쓰는 「아마카스는 복수인가」(甘粕は復讐か)라는 짧은 에세이를 썼다.<sup>45)</sup>

나는 군국주의라는 것에 대해 대단한 쾌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의 대재해로 국내를 다스리는 데 있어 오늘날과 같은 인간의 진보 정도에서는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했다. 이번의 대재해에서 가장 난잡하고 혼란스러웠던 곳은 아마도 요코하마시일 것이다. 나는 저 대지진의 밤, 도쿄에서 가마쿠라까지 걸어갔기 때문에 요코하마의 혼란을 보았지만, 왜 저 대도시의 근린에 일개 연대의 군대도 주둔하지 않았는지 수상하게 여겼다. 50만의 인구가 있는 대도시의 근방, 예컨대 호도가야(保土ヶ谷) 근처의 야마노테(山の手) 주변이라도 만약 병영이 있어서 거기에서 바로 군대가 투입될 수 있었다면, 요코하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꺼림직한 소문들은 나지도 않고 끝났을지 모른다.<sup>46)</sup>

에세이는 이 문장 뒤에 ‘대재해’에 즈음하여 공병대, 육군, 해군이 얼마나 ‘실로 훌륭한’ 움직임을 보여 주었는가를 기록한 뒤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군대에 대한 호감이 남아 있을 즈음 이번의 아마카스 사건은 완전히 군대 그 자체를 위해 아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중에게 그 정도로 친밀하던 군대가 이번 사건으로 다시 이상하고 차갑고 두려운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아마카스 대위가 단수였다면, 차라리 일본은 행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복수

44) 「떠도는 류큐인」에는 “예(例)의 지진”이라는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

45)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마카스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23년 9월 1일에 일어난 관동대지진의 혼잡을 틈타 9월 16일 도쿄헌병대 고지마치(麹町) 분대장이던 아마카스 마사히코(甘粕正彦)가 아나키스트인 오스기 사카에(大杉栄), 이토 노에(伊藤野枝)와 그의 조카(橋宗一, 당시 6세)를 살해한 사건이다. 이후 아나키스트들이 보복에 나서기도 했지만 대부분 체포되어 일본 아나키스트 운동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아마카스는 징역 10년을 판결 받지만 단기 복역 후인 1926년에 석방되었다. 일본 육군의 지원으로 프랑스에 유학한 뒤, 만주로 건너가 관동군에서 특무공작을 수행하면서 만주사변에 관여했고 만주국 건설에도 일조했다. — 옮긴이

46) 이 문장은 悪麗之介 編・解説, 『天変動く—大震災と作家たち』, インパクト出版会, 2011, 192쪽에서 인용했다.

였다면, 이 기회에 어디까지나 군대의 편견을 꾸짖고 개심시키는 것을 사회의 의무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sup>47)</sup>

히로쓰는 관동대지진 때 군사적인 치안유지, 즉 계엄령에 근거한 비상사태 조치를 전면적으로 긍정한 뒤, 아마카스에 의한 오스기 사카에(大杉栄), 이토 노에(伊藤野枝)와 그 조카의 살해를 ‘군대의 편견’으로 지탄하고 있다. 이 에세이의 표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히로쓰가 주제로 그리고자 했던 것은 후자의 군대에 대한 비판이며, 계엄령은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는 사전 연출적인 기술이다. 거기에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계엄령과 그렇지 않은 ‘군대의 편견’의 구분이 있을 것이다. 또 히로쓰의 군대에 대한 긍정감은 “군대가 없었다면 안녕 질서는 유지할 수 없었다”고 기술한 사토 하루오(佐藤春夫)의 「사벨(サーベル) 예찬」(『改造』, 1923년 11월호)에 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오히려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근본적으로 공통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히로쓰나 사토, 그리고 당시의 지식인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계엄령은 도대체 어떤 질서였을까?

잘 알려진 것처럼,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도쿄·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에 등장한 계엄은 대일본제국헌법 14조에 있는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제8조 “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그 재난을 피하기 위해 긴급의 필요에 따라 ……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긴급의 필요’에 의한 칙령으로서 계엄령이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일거에 법의 정지와 군대에 의한 지배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치안유지를 위해서 일부의 법의 운용을 행정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그 행사에는 군대가 아니라 경관이나 지역 유력자도 관계하고 있다. 이러한 계엄령은 행정상의 법운용 정지로 간주되어 행정계엄이라고 불렸지만, 그것은 헌법에 계엄 규정을 가지지 않는 현 헌법하에서 자위대의 치안출동이나 유사법제에서의 유사사태법, 나아가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에서의 ‘경계선언’과 유사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

47) 悪魔之介 編・解説, 『天変動く—大震災と作家たち』, 192쪽.

며, 거기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은 ‘공공의 안전’ 혹은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다.

재해나 안전과 관련한 목적은 그것이 계엄령이라는 질서 형태에서의 목적이란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항이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독재에서의 법의 의미를 근거로 하여 지적하는 것처럼, “문제는 어디까지나 계엄령의 포고에 의해, 그것이 얼마나 부분적인 적용이든, 통상 법규를 정지하고 규범의 지배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 있다. 바꿔 말하면 법과 규범이 끊임없이 그 거리를 단축시키는 사태야말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sup>48)</sup> 여기에서 말하는 규범이란 법이 지키려 하는 규범이며, 중요한 것은 그 규범의 실현이 ‘법규의 정지’, 즉 법 외적인 힘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 있다. 바꿔 말하면, ‘공공의 안전’은 안전이라는 공적 규범을 규정하는 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넘어선 무법의 폭력으로 수행되는 것이며, 반대로 말하자면 무법의 폭력은 규범 유지를 위해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을 넘어선 폭력이야말로 국가인 것이다. 따라서 계엄령의 법적 규정이란 원래 법을 폭력적으로 일탈하여 재조정해 가는 수행적인 프로세스를 내포한 것이며, 기존 법령의 발령으로만 계엄령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49)</sup>

그리고 이처럼 규범과 법이 접근한 영역이야말로, 달리 말하자면 국가의 폭력이 현세화하는 수행적인 프로세스야말로 일본인이라는 단어가 담당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것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충구를 들이대면서 이뤄진 규범적인 판단, 즉 심문이다. 계엄령에서는 이 심문에 의한, 지켜야 할 일본인인가 아닌가의

48) 金杭, 『帝國の關』, 155쪽.

49) 그것은 행정계엄령이 제국헌법14조에 의한 계엄선고보다 위험하다는 것에도 중첩된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행정계엄 쪽이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 남용으로 적용 확대를 초래하는 것이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탈과 재조정이 절차 혹은 운용의 문제로 해소되는 사태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그것은 법적 근거인 14조가 없어도 계엄령이 실질적으로 전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때문에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자위대의 치안출동도 포함해서 계엄령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관동대지진에서의 계엄령의 전사로서 쌀 소동이나 노동쟁의, 총파업에 대한 치안출동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혹은 관동대지진 때의 내무대신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의 전직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며, 또 경시총감 아카이케 아쓰시(赤池濃)도 마찬가지로 전직이 조선총독부의 경무국장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3·1독립운동을 진압했다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계엄령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질서를 넘어선 국가와 제국의 폭력에 관련된 문제다. 大江志乃夫, 『戒嚴令』, 岩波書店, 1978, 112~143쪽 참조.

판별이야말로 법을 대신하는 질서로서 등장한다. 군대, 경찰, 자경단에서 등장한 심문체제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군대야말로 부단히 수행되는 심문체제를 유지하는 힘으로 등장한다. 법이 '법조정적(法措定的) 폭력'(벤야민)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계엄령하에서, 주둔하는 군대가 자기들을 지켜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와 자기를 진압할지도 모른다고 예감하는 자가 있다. 전자의 인간에게 조선인이나 중국인 혹은 아나키스트나 노동운동 활동가의 학살은 애당초 계엄령의 정당함에서 일탈한 오해이며, '꺼림칙한 소문'이 불리일으킨 예외적 사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에게는 군대의 존재 자체가 일상의 상태로서 자기들에게 향해진 폭력을 예감시키는 근거임에 틀림없다. 오해나 꺼림칙한 소문 혹은 편견을 지탄하는 자는 다른 한편으로 자기들의 안녕을 지키려는 정당한 군대를 예찬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나 부담을 떠맡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오해를 지탄하는 사람과 오해의 이름 아래서 학살당하는 사람이 있다. 후자에게 있어서 오해란 비상사태에서의 특수사례로 일상으로부터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덮쳐 올지 모를 폭력에 대한 예감으로서 존재한다. 오키나와청년동맹의 히로쓰에 대한 항의란이 예감과 관련되어 있다.

안녕 질서를 지키는 계엄령하에서 오키나와인은 끊임없이 심문에 노출되었다. “조선인일 것이다”, “말이 조금 다르다”<sup>50)</sup>. 처음에 기술한 것처럼, 이미 살해당한 사람들의 사체가 늘어선 옆에서 이뤄진 이 심문을 단순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신체를 꿰뚫고 전신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심문은 생사를 나누는 신체검사인 것이고, 고문이며, 이미 폭력이다. 그리고 목내부의 성대를 긴장시켜 입가의 근육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발생하는 “나는 조선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몸으로 보여 주지 않고서는 응답한 것이 되지 않는 ‘정신 차려!’라는 호령에 대한 몸짓이다. 그래서 심문은 신체적으로 기억되며, 따라서 일상상태로서 계속되는 것이다. 그것은 계엄령이 해제되어 군대가 이동한

50) 比嘉春潮, 『沖繩の歳月』, 中央公論社, 1969, 109쪽; 富山一郎, 『暴力の予感』, 서장 참조.

뒤에도 그 등장을 계속해서 감지하는 신경계로서 계속 존재할 것이다.

“너희들도 오인되어 살해되지 않도록.”<sup>51)</sup>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어의 교정을 하려고 했던 교사가 과거의 관동대지진을 언급하면서 교실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는 부단한 계엄령의 폭력이 감지되고 있다. “오인되어”라는 오해의 결과는 살해당한다는 것이다. 혹은 아마노구치 바쿠(山之口獾)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오키나와의 사람들도 너(君)에게서 충(忠)이니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겠네”라고 말한 것이다. 전시(戰時)였던 만큼, 나는 그의 한마디에 땀으로 흠뻑 젖었다. 물론 식은땀이었다. / “외국인이 아니니까”라고 말하자 / “그건 그렇지”라며 그는 당황했다.<sup>52)</sup>

여기에서 왜 ‘그’가 당황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인물이 “너에게서 충”을 물었던 것에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아마노구치 바쿠는 몸에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외국인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의 질문은 아마노구치에게 있어서 심문이었기 때문이다. 이 응답에 대해 ‘그’는 바로 “그건 그렇지”라며 질문을 철회한다. 그러나 아마노구치의 신체에는 식은땀이 계속 흐른다. 역시 심문은 신체적으로 기억되고, 따라서 일상 상태로 계속되며, 심문이 끝난 뒤에도 재차 등장을 감지하면서 신경계로서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폭력을 감지하는 신경계는 1926년에는 오키나와청년동맹의 것이기도 했다. 히로쓰의 오해는 틀림없이 군사적 호령으로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키나와청년동맹은 오해에 항의하고, 히로쓰는 사죄를 하고 쓰러뜨려지는 일 없는 안녕의 질서의 주인으로 복귀한 것이다. 계속 심문당하는 자와 당

51) 沖縄県労働組合協議会, 『日本軍を告発する』, 1972, 69쪽; 富山一郎, 『暴力の予感』, 서장 참조.

52) 山之口獾, 『沖縄の叫び』, 『山之口獾全集 第四巻 論』, 思潮社, 1976, 221~222쪽; 富山一郎, 『暴力の予感』, 서장 참조.

연한 것처럼 안병의 질서에서 계속 살아가는 자. 양자는 오해라는 말로 화해하고  
그리고 결렬했던 것이다.

#### 4. 마치며 : 제국으로부터의 이탈

히로쓰와 오키나와청년동맹의 「떠도는 류큐인」을 둘러싼 대화는 히로쓰의 “저 작품을 말살하고 싶습니다”라는 선언에 의해 종결된 것처럼 보인다. 또 이 작품과 항의·응답의 과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신오키나와문학』을 비롯하여 많은 논의를 낳았지만, 오키나와청년동맹과 히로쓰에 의한 화해 자체는 (여러 논의의)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해도 좋다. 그러나 이미 진술한 것처럼, 화해 속에 결정적인 결렬이 포함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신체가 은밀하게 확보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sup>53)</sup> 이러한 말의 소재는 지금 제창되고 있는 ‘힘내자 일본’, 그리고 오키나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히로쓰가 사죄와 함께 다시 오키나와 문제에 대해 연대를 선언하는 가운데 그 문턱의 영역에 침묵하며 서성이는 사람이 있다. 되풀이하지만, 오키나와청년동맹이 오키나와라는 이름에서 꺼안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구제의 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오키나와라는 지리적 범위에 둘러싸여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반대로 오키나와 밖으로 옮겨 살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분기선이 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구제를 요구하는 신청자로 대표되는 가운데, 신청자로서 스스로를 밝힐 수 없는 영역이 신청이라는 프로세스 내부에 구성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자연화된 지리적 범위를 근거로 한 오키나와라는 이름이 신청의 근거가 되는 가운데, 스스로를 밝힐 수 없는 영역이 토지로부터 떨어져 나와 이탈할 잠재적인 가능성을 꺼안고 있는 상태이기도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잠재성은 어떤 지리적 장소로의 이동에서만 현재

53) 히로쓰 자신은 그 사태에 정신을 차렸는지도 모른다. ‘정신 차려!’라는 호령은 타자의 신체를 감지하는 신경계를 자신의 내부로 비장(秘藏)하게 하는 선언일지도 모른다.

화(顯在化)하는 것이 아니다. 신청자로서 오키나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신청자라고 밝히는 것에서 이탈의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키나와청년동맹이 오키나와라는 이름으로 꺼안고 있는 이 사람들이 위기에 각인된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삶이 오키나와 문제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도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며, 구제의 법의 불합리에서 생성되는 오키나와 문제와는 다른 역사를 떠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소설 「떠도는 류큐인」 속의 ‘자신’은 미카에루 다미요의 위법한 행위에서 그의 삶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생성을 불온한 미래로서 예감했다. 즉 범죄라는 사법적인 정의가 역사성을 띠고 구제의 법과는 다른 가능성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사태를 쓰러뜨려질지 모른다는 폭력의 예감으로서 감지했던 것이다. 이 예감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질서로부터의 이탈 가능성도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오키나와 문제를 말하는 양심적 지식인으로부터의 이탈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예감은 오키나와청년동맹의 항의를 받고, 오해로서 봉인되었다.

하지만 오해로서 봉인한 한쪽의 당사자인 오키나와청년동맹 혹은 오키나와 문제의 문턱에서 침묵한 사람들은 끊임없는 심문에 의해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일상상태로서 감지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계엄령이 나타내는 것처럼, 법이 정지하고 군사적 폭력이 질서를 구성할 때 그 질서 형성의 기점이 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심문이다. 일상은 법적 질서가 아니라 국가의 군사적 질서하에서 군사회되고, 사벨을 휴대한 채 진행되는 일본인인가 아닌가의 심문에서 수행적으로 창출되는 것이다. 사토 하루오와 히로쓰 카즈오가 승인한 것은 심문의 장에서 생성되는 이 국가와 국민이다.

그리고 오키나와청년동맹은 ‘자신’이 감지한 불온한 미래에 틀림없이 사벨의 등장을 예감했다. 다시 말해서, 구제의 법의 불합리에서 생성되는 오키나와 문제와는 다른 역사란 이 사벨의 근방에 있는 것이며, 오키나와청년동맹은 화해에 의해 사벨의 근방에서 생성되는 역사를 봉인하고, 또한 동시에 확보했을 것이다. 즉 이 역사는 “나는 조선인이 아니다” 혹은 “외국인이 아니다”라는 응답 이외의 몸짓을 심문의 장에서 보일 가능성이며, 그 가능성은 식은땀을 흘리는 신체에서

끊임없이 감지되고 있다. 화해라는 이름의 봉인은 이 가능성을 오키나와라는 이름의 내부에 비장(秘藏)했던 것이다. 그것은 지금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현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비장된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역사가 생성되는 것을 선취하여 진압하는 것이 국가다. 그것은 니코스 풀란차스(Nicos Poulantzas)가 말하는 ‘국가의 비합법성’이며, “국가의 비합법성은 항상 국가가 설정한 합법성 속에 새겨져 있다.”<sup>54)</sup> 합법성과 비합법성, 즉 구제의 법과 계엄령, 혹은 오키나와 문제와 치안출동은 새로운 역사 생성에 대한 안전판(security)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제국 영토로부터 이탈의 가능성은 우선 자연화된 지리적 범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법과 국가의 비합법성의 등장, 즉 계엄령의 근방에 있으며, 그 결과 제국의 영토가 재정의되어 가는 프로세스로 귀착한다. 국가적 문제로서의 오키나와 문제와 국가의 비합법인 계엄령은 함께 제국으로부터 오키나와의 이탈의 가능성을 지리적 영토로 재정의하는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키나와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 프로세스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011년 3월 11일의 대지진과 관련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체에 깊이 새겨진 상처를 보상으로 신청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신청은 보상되지 않는 신체를 확인하고 확보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어느 곳이든 살 수 있는 장소는 이미 사라졌고, 박탈된 삶은 결코 보상되는 일 없는 무딘 결의를 떠맡는다. 이러한 신체가 형성하는 지각에 의해, 보이지 않는 감옥 그리고 국가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설정하고, 상처를 계산가능한 평가액으로 바꾼 뒤에 보상을 제시하는 국가는 동시에 그 법적 절차의 문턱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무토 루이코)를 선취하고 예방적으로 진압하는 무법한 국가이기도 하다. 재해는 역시 계엄령과 함께 있는 것이다.

관동대지진 때 그랬듯이, 계엄령으로 주둔하는 군대가 자신들을 지켜 줄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을 진압할지 모른다고 예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

54) 니코스·풀란차스, 『국가·권력·사회主義』, 田中正人·柳内隆 訳, ユニテ, 1984, 90쪽.

다. 위장복을 착용한 ‘친구’에게서 팔루자의 흠과 피의 냄새를 맡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엄령의 안녕을 향수하는 사람들에게도 쓰러뜨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감춰져 있다. 이시하라가 사용한 ‘삼국인’이라는 말에는 제국의 유산 위에서 있는 것에 대한 자각과 동시에 쓰러뜨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대전(帶電)하고 있다. 그는 계엄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자신의 장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을 가진 사람들은 “일관하여 ‘유사’”(도바루 가즈히코)인 장소에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배치하고 그 땅을 자신의 영토로 매입하지 않으려 한다.<sup>55)</sup> 그러나 안녕을 향수하는 사람들의 국가로부터의 이탈도 또한 이 계엄령에 대한 감지력에서 개시되는 것이다. 박탈당한 삶은 「떠도는 류큐인」들이 떠안은 역사 생성의 가능성을 은밀하게 계승할 것이다. 또한 이 사람들도 구제나 부흥 혹은 ‘○○ 문제’와는 다른 이름을 획득할 것이다.

55) 이시하라가 2012년 4월이 되어서 입 밖에 낸 센카쿠 제도의 매입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오키나와에 대한 돈의 투하인 것과 동시에 일본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협박이기도 하다.

\* 이 글의 원문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정영신(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 중앙대학교 시간강사)이 번역하였다.

**계엄령에 대하여 : 관동대지진을 상기한다는 것 | 도미야마 이치로**

투고일자: 2012년 5월 21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6월 7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7월 31일

구제의 법을 내걸고 개입하는 국가는 동시에 구제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진압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전자는 법의 갱신으로, 후자는 그 갱신을 수행하는 불합리한 힘으로 존재한다. 위기란 이러한 힘이 현실화되는 사태가 아닌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틀을 통해 작년 3월 11일 이후, 대재해를 계기로 진행 중인 지금의 위기와 이른바 ‘오키나와문제’를 중첩시켜 논의하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성적으로 그려진 일본이라는 국가 시스템에서 볼 때 오키나와와 후쿠시마가 같은 희생자라는 유사성의 해설이 아니다. 법과 관련된 불합리한 힘에 대한 감지력을 통해 획득된 ‘바뀔 가능성이 있는 현재’(“a transformative present”, R. Solnit)로, 굳이 말하자면 폭력의 예감과 함께 발견되는 미래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을 사고하기 위해 오키나와를 문제 삼는 것이다. 그와 관련된 논의의 기점으로서 1923년의 관동대지진과 거기에서 등장했던 계엄령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진재해나 계엄령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히로쓰 가즈오의 1926년의 소설 「떠도는 류큐인」에 초점을 맞췄다.

**주제어:** 계엄령, 오키나와 문제, 폭력, 관동대지진, 히로쓰 가즈오

**일본 재난영화의 내셔널리즘적 변용 : 「고지라」와 「일본침몰」을 중심으로 | 김려실**

투고일자: 2012년 5월 15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6월 8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7월 31일

이 글에서는 일본영화가 재해를 어떻게 포착/표상해 왔는가에 주목하여 재난영화의 내셔널리즘적 변용을 「고지라」 시리즈와 「일본 침몰」(1973, 2006), 「일본 이외 모두 침몰」(2006)을 중심으로 논한다. 특히 이 영화들은 현실에서 발생한 재해를 반영하면서 일본인의 근원적이며 일상적인 공포를 표상한다. 전후 일본의 괴수영화에는 표면화되지 않은 경우라 해도 핵전쟁이라는 잠재적인 재앙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다. 예를 들면 1954년 제5후쿠류호 사건을 반영한 「고지라」(1954)는 일본인에게 “생태학적 관점의 반핵영화”로 수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괴수가 퇴치시켜도 또 돌아온다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일본인의 잠재적 공포가 그만큼 뿌리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인플레이션과 오일쇼크로 일본경제가 위기에 처한 70년대는 일본영화계의 스튜디오 시스템이 몰락한 시기와 겹친다. 「일본 침몰」(1973)은 ‘침몰’이라는 비유를 통해 전후 체제 아래 성립된 기존의 일본사회가 붕괴할 것으로 예견한 고마쓰 사료의 전설적인 베스트셀러 SF를 원작으로 한다. 그러나 원작의 비판 의식은 영토와 민족을 본질적인 것

are detailed. The colonized is declared as ‘a barbarian,’ discriminated as a living ghost “whose murder would be a crime” in a concentration camp or in an emergency, and the poet’s language crosses the boundary from an anguished cry and descends closer to the howl of the dead. In this process of recording the language that were cried out by a living person on the border between the undead and/or the living dead, modern Korean poetry’s language was given birth.

The two works prove once more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howl” and “literature” in that it draws the fate of language and humanity in an emergency, such as in the example of the human caught between his neighbors and disasters. In the destruction of law and order, a man can be a wolf to other men, and “loving one’s neighbor as one loves oneself” must be understood not as a law or a religious precept but as the ultimate ethical imperative that also applies in the event of disasters and other calamities.

**Keywords :** Disasters, Neighbors, Kim Dong-hwan, “Night of the Border”, “Homeland’s Ascension”, continuity, Camp, Colony, The colonized, Howl, Living ghost, Living Dead, Undead, Love, Hostility, Root of Poetry

### **About the Martial Law : The Meaning of Recalling Great Kanto Earthquake**

\_ TOMIYAMA, Ichiro

A state that intervenes in civil affairs in the name of relief act is also a state that monitors and suppresses those who do not ask for help. The former amends the law, while the latter is the power that carries out those new laws outside its function. Is crisis not the situation when these powers materialize themselves? With this question in mind, I will try to analyze the ongoing crisis that was triggered by the natural disaster on March 11, together with so-called “Okinawa issue.” It is not to explain the similarities between Okinawa and Fukushima as “victims” of the state machinery of “Japan” in the way of understanding them. I have picked the “Okinawa issues” in order to think about how people can find a sense of attachment in one another in the “transformative present” (R. Solnit), which can be attained through the sensitive ability toward horrendous power of law, as well as in the future found within the anticipation of violence. In so doing,

I paid attention to the martial law that appeared in the aftermath of the 1923 Great Kanto earthquake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discussion. The focal point of the study is Hirotsu Kazuo's novel, *Samayoeru Rukyujin*, published in 1926, which seems to have little relevance to the earthquake or the martial law itself.

**Keywords :** Martial Law, Okinawa Issue, Violence, Great Kanto Earthquake, Hirotsu Kazuo

**Nationalistic Changes of Japanese Disaster Movies : Focusing on *Godzilla* and *Japan Sinks*** \_KIM Ryeo Sil

In this paper, I examine nationalistic changes of Japanese disaster movies, *Godzilla*(1954), *Japan Sinks*(1973, 2006), and *The World Sinks Except Japan*(2006) focusing on how Japanese cinema has captured and represented disasters. These movies especially represent Japanese fundamental and ordinary fear reflecting actual disasters. Japanese monster film is involved with fear for the potential catastrophe, a nuclear war even if it does not come to surface. For example, *Godzilla* reflecting the Fifth Hukuryumaru incident of 1954, an incident of radiation exposure, is accepted as “anti-nuclear movie in the ecologic point of view.” However, the impossible eradication of *Godzilla* and its return mean that Japanese potential fear is deep-rooted under American nuclear umbrella. On the other hand, inflation and the first oil shock caused the economic crisis in 1970's and it led to the crash of studio system. *Japan Sinks* is based on the bestselling science fiction written by Sakyō Komatsu, who predicted existing Japanese society established under the postwar system would be collapsed, by using “sinking” as a metaphor. However, by positing that the land and the people have the intrinsic value, the critical consciousness of the original is stuck in the nationalistic circuit. In the film version and comic version, the original is changed into an ethnic narrative of how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Japan Sinks* turns westernized young people over to the nationalistic circuit through the logic that the Japanese can overcome whatever the crisis is because the Japanese is crucially different from other people. Remake version of *Japan Sinks* and *The World Sinks Except Japan* based on a parody of the original fiction, made in 2006, show